

LG Display

선배들의 생생 Talk

HR편

업무소개

합격꿀팁

진실 혹은 거짓

현직자피셜 LGD Life

선배들의 생생 Talk

INTERVIEW

Global HR

남원진 선임



업무소개

남원진 선임님의 업무에 대해 소개부탁드립니다.



Global 판매법인 인사 업무는 해외 판매법인의 인사 제반 사항에 대한 Total Solution 을 제공하는 일이에요.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에 근무하는 LGD 해외법인의 평가, 임금, 보상, 인력운영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기획, 운영과 주요 이슈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어요. Global HR 의 가장 큰 매력은 인사제도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획하고 운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연간 진행되는 회사의 모든 인사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인사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해요. 또한 세계 각국의 현지 직원분들과 소통하며, 각 국가의 현지 문화와 제도를 알고 Global Mind를 함양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남원진 선임님은 LGD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오전

09:00

전날에 받은 메일 확인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메일과 조직, 사람에 대한 검토요청 등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들에 대한 메일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해외 법인과 주고 받는 메일이 있다 보니 영어로 소통하는 경우도 많아요.

점심

11:30

점심식사 후에는 주로 팀원들과 트윈타워 근처로 산책을 나가요. 산책을 하며 팀원들과 일상적인 이야기, 업무적인 고민 들도 나누며 스트레스도 풀고 친목도 다지는 시간이에요.

오후

15:30

오후에는 중점업무를 진행해요. 요즘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해외법인의 핵심인재에 대한 선발, HR Audit 준비가 있어요. 해외법인의 핵심인재 선발에 대한 요건, 관리방안, 소통방안 등을 고민하고, 해외법인 HR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HR Audit을 준비해요. 모두 해외법인, 유관부서, 팀원분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진행하는 업무들로, 중요한 업무인만큼 잘 마쳤을 때 해외법인 사업성과에 기여한다는 보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며 진행하고 있어요.

퇴근

18:00

퇴근 후에는 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시절에는 화보 촬영을 했을 만큼 주 4~5회는 헬스장에 다니고 있어요. 운동을 마치고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등 주로 생각을 채우고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합격 꿀팁

남원진 사원님의 인사기획 직무 합격 꿀팁
한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면접 준비를 꼼꼼히 한 것이 합격한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예상질문 50개 정도에 대해 답변을 미리 적어보고 저만의 언어로 언제 물어봐도 이야기 할 수 있을 만큼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문과이다 보니 접할 기회가 적은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적 지식에 대해서는 면접 스터디를 통해 관련 전공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보며 준비했어요. 사실 서류 합격은 개개인의 과거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면접은 과거의 이력이 어떨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실 혹은 거짓

‘~카더라’로 들리는 소문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취업준비를 할 때, LGD는 조직문화가 딱딱하고 밤 늦게야 퇴근한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근무를 해보니, HR 조직은 굉장히 유연하고, 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며, "두려움 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무시간도 매월마다 다르긴 한데, 정규 근로시간(일8시간)만큼 업무하는 날이 전체 근무일의 80% 정도 되는 것 같고, 15% 정도는 야근을, 5% 정도는 선택적 시간 근로제에 따라 오후 3시~4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제가 주 4회 정도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연애도 하고, 책도 읽고 하는 것을 보면 입사 전에 들었던 소문과 실체는 다른 것 같아요.



현직자피셜 LGD Life

업무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업무하며 가장 힘든 순간은 "모호한" 순간의 연속이라는 점이에요.

인사 업무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러 상황 속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라
보니 주로 모든 상황의 시작은 "모호함" 입니다. 여전히 이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팀원들과 함께 길을 찾아가며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선배들의 생생 Talk

INTERVIEW

Global HR

류지민 사원



업무소개

류지민 사원님의 업무에 대해 소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lobal HR 업무 중에서도 주재원들과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법인에 파견 나가 있는 임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법인들과 소통하며 관련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개선 검토를 하는 것이 main job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법인과 본사 간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Global HR의 가장 큰 매력은 여러 법인과 소통하면서 각 국가의 특성을 경험해보고 Global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발생하는 Issue에 자주 대응하다보니, 자연스레 해당 국가들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이나, 인사 정책들에 대한 이해도를 키울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이 앞으로 인사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해요.

류지민 사원님은 LGD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오전

09:00

아침엔 우선 출근하자마자 몇몇 팀원들이랑 커피를 받으러 가요. 회사 6층에 휴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아침마다 간단한 간식을 나눠주고 커피를 내려받을 수 있거든요. 자리로 올라와서는 제일 먼저 메일을 확인해요. 메일을 대응하고 나면, 그날 운영해야하는 업무를 시작해요. 발령 처리, 급여 검토 등의 업무랍니다.

점심

11:30

사내 식당에는 Take out 메뉴나 샐러드바도 운영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요즘엔 가끔 날씨가 좋을 때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돛자리를 깔고 피크닉 런치를 하기도 해요. 식사가 끝나면 한강이나, 여의도 공원에서 산책을 해요.

오후

15:30

오후에는 제도 점검, 기획이나 HR Issue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요. 여러 개 법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업무라, 국가, 지역별로 자주 검토가 필요한 Issue가 발생해요. 법인별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본사의 취지와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향을 늘 고민하면서 각 법인과 소통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퇴근

18:00

퇴근 후에는 주로 필라테스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요. 취준생 때는 불규칙한 생활과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했는데, 입사 후에는 퇴근 시간이 대체적으로 규칙적이고, 퇴근 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없으니 마음 편히 운동에 몰두할 수 있어요. 운동을 안하는 날에는 친구들과 만나 한강이나 맛집을 가거나,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를 보며 휴식을 취해요.



합격 꿀팁

류지민 사원님의 인사기획 직무 합격 꿀팁
한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직무에 초점을 맞춰 면접을 준비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LGD 사업에 대한 부분은 문과전공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공부는 해갔지만 직무 관련 준비에 더 집중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내가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가, 왜 이 회사에 오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가장 많이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만
확실히 준비가 되면 면접 볼 때 자신이 생기고,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덕분에 입사 후 면접 때 직무에 대한 동기가 확실해 보였다, 자신감 있어
보였다는 평을 들었어요.



진실 혹은 거짓

‘~카더라’로 들리는 소문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입사 전 LG Display는 제조업인만큼 분위기가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의 조직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입사해보니 복장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생각보다 자율적이고, 팀원들간에도 매우 친밀한 분위기여서 놀랐어요.

직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HR 직무는 여성 비율도 거의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조직문화에 적응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 지금도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현직자피셜 LGD Life

회사 생활을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제가 입사 초 운영 업무를 하면서 꽤 큰 실수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당황하고, 어떻게 수습할지도 몰라 너무 착잡했는데, 그때 제 사수 분께서 “회사에서 수습이 불가한 실수는 없다”며 차근차근 수습할 방법을 알려주셨던 게 생각나요.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아무리 큰 실수도 모두 수습이 가능해요. 입사 후 실수했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구해보세요. 조금 더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이 친절히 가르쳐주실 거예요.

선배들의 생생 Talk

INTERVIEW

—

인사기획

유호영 사원



업무소개

유호영 사원님의 업무에 대해 소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요 업무로 성과관리시스템과 경력개발시스템을
합친 통합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시스템 화면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새로운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고, LG CNS
개발자분들 및 디자이너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업무의 스펙트럼 또한 넓혀가고 있어요.
개발되는 통합 시스템은 내년 오픈 예정인데, 어떻게 구현이 될지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통합
시스템 개발 업무 외로는 재택근무, 비용계획 등 다양한 업무도 맡고 있어요. 입사하고
처음에는 내가 이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차차 업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유호영 사원님은 LGD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오전

09:00

주로 바이크를 타고 출근해요. 날씨가 좋을 때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추워서 바이크나 지하철을 애용해요. LG 트윈타워에는 자전거나 바이크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주차장도 있어서 정말 편해요.

점심

11:30

저희는 보통 팀원들끼리 식사를 하지만, 가끔은 담당님이 식사를 사주실 때도 있어요. LG트윈타워에서는 여의도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점심식사 이후에는 날씨만 좋으면 산책을 해요. 시간이 없으면 트윈타워를 돌기도 하니, 산책 좋아하는 분이 오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끼리는 ‘탑돌(타워돌기)하자!’라는 말을 써요.

오후

15:30

식사 후에는 나른해지기 시작해서 업무 집중을 위해 커피를 꼭 마시는 편이에요. 오후에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퇴근시간이 되어 인턴이 인사를 하면 벌써 퇴근시간이 되었다는 걸 놀랄 때도 가끔 있어요. 퇴근시간이 되었는데도 업무가 남아 있으면 필요에 따라 야근을 하지만, 야근이 잦은 편은 아니라 워라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퇴근

18:00

사실 퇴근시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갑자기 업무를 받을 수도 있는거고, 퇴근시간 전에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던 업무에서도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가끔 퇴근시간이 맞는 동료들이랑 퇴근 후에 맥주 한잔하면 그것만큼 소확행도 없는 것 같아요.



합격 꿀팁

유호영 사원님의 인사기획 직무 합격 꿀팁
한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강점을 알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서류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면접에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강점을 어필한다면, 그리고 그 강점이 인사기획 직무에 적합한 것이라면, 떨어질 이유가 없을 거예요.



진실 혹은 거짓

‘~카더라’로 들리는 소문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LG Display보다는 대기업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대한 편견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흔히 대기업을 다니면 맡는 업무가 한정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스타트업에 비해서는 다소 보수적이라고 느낄만한 부분은 당연히 있을거예요. 하지만 대기업은 요즘 세대인 Z세대부터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 연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 세대의 취향에만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LG Display는 이런 측면에서 아직은 다소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도록 지원하고 바뀌려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사기획에서는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고, 선배분들도 그런 도전을 하는 것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니, 자신은 스타트업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더라도 LG Display에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직자피셜 LGD Life

회사 생활을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입사 첫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전날에 긴장돼서 잠도 거의 못잤었고, 너무 일찍 일어나서 회사까지 걸어서 출근을 했었거든요. LG트윈타워에 와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사무실로 올라가는 길에 '혹여나 첫날부터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잔뜩 긴장했던 기억이 있네요. 올라와서 팀원들과 인사를 하는데, 팀원분들이 너무 밝게 맞아주셔서 굉장히 안도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때 팀장님께서 해주신 조언은 아직도 메모장 맨 앞장에 적혀있어서, 가끔씩 읽어보곤 해요. 취준생분들! 취업때문에 걱정도 많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실때도 있을거예요. 그럴때마다 입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내서 준비하시면 원하는 결과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